

5성급 호텔 유치 '시동'...광주 관광산업 시험대



광주의 숙박 인프라 논의는 이제 '유치 여부'를 넘어 도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5성급 호텔 한 곳이 들어선다고 해서 숙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대형 개발사업마다 특급호텔 계획이 포함됐지만 수익성 한계와 수요 불확실성, 운영 역량 부족 등의 벽을 넘지 못하며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결국 광주에 필요한 것은 특정 시설 하나가 아니라, 체류 구조와 산업 기반, 인력 생태계를 함께 재설계하는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숙박 산업은 단순한 객실 공급 사업이 아니다. 관광 구조와 산업 수요, 문화 콘텐츠, 교통 접근성, 서비스 인력 수준이 맞물려야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형성된다. 특히 특급호텔은 객실뿐 아니라 회의·연회·식음·컨시어지 기능을 포함한 복합 인프라로, 국제회의(MICE)와 기업 행사, 장기 체류형 관광을 뒷받침하는 도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광주는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의식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고 본다. 지역 내 고급 숙박 수요는 특정 행사와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평시 안정적인 객실 수요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급호텔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체류 수요를 확대하는 구조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복합 체류 모델'이다. 단독 호텔 유치에서 벗어나 산업·문화·쇼핑·의료 기능과 숙박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광주는 제조업과 첨단산업, 의료 인프라, 문화예술 자산을 동시에 갖춘 도시다. 이를 개별 자원이 아닌 하나의 체류형 도시 상품으로 묶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AI 집적단지와의 미래차 산업,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방문 수요는 잠재력이 크다. 여기에 삼급종합병원을 활용한 의료 연계 체류 모



◀더그레이트 광주터미널 복합화 사업 조감도
▽더현대광주 조감도

지역 산업·문화·MICE 결합... '체류형 복합 모델' 필요 호텔 전문인력 유출·교육 한계... 체계적 시스템 구축도

텔, 문화행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결합하면 단순 방문을 넘어 체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비즈니스·문화가 결합된 구조가 만들어져야 특급호텔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문화·예술 콘텐츠 역시 체류 전략과의 연계가 핵심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충장축제 등은 전국적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개별 행사 중심 운영에 머물며 체류 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관광 동선과 숙박, 야간 콘텐츠를 결합한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ICE 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광주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숙박·연회 기반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형 행사 시 참가자들이 인근 도시로 분산 숙박하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이는 지역 소비 유출과 직결되는 문제다. 향후 숙박 인프라 확대는 객실 수보다 회의·관광·교통

을 연결하는 운영 구조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운영 인력 문제는 광주 숙박 산업의 가장 현실적인 한계로 꼽힌다. 호텔 산업은 시설보다 사람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지만, 지역에서는 인력 유출과 인력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의 호텔 전문 인력 양성 기반도 취약하다. 일부 대학에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지만, 수도권처럼 체계적인 실무 교육과 현장 연계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과 운영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역 호텔 종사자 가운데 관련 전공 출신 비율은 높지 않고, 상당수가 비전공자로 채용되고 있다.

지역의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직원 100명 중 전공자가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 서비스 교육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흔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낮은 임금과 근무 환경 역시 인력 유출



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고대근무와 감정노동 부담에 비해 초임 수준이 낮아 전공자 상당수가 수도권 호텔이나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급호텔이 들어서더라도 핵심 인력은 외부에서 충원되고, 지역 인력은 단순 직무에 머무르는 '미스매치'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AI·디지털 기반 운영 시스템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체크인 자동화와 수요 예측 시스템 등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기술 도입 역시 현장 인력의 숙련도와 서비스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람과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광주의 숙박 인프라 해법은 '5성급 호텔

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가 방문객을 얼마나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산업과 관광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의 문제다. 특급호텔은 그 결과물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조 피터 성규 C&S호텔 부사장은 "특급호텔은 도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경쟁력의 완성은 아니다"라며 "광주는 산업·문화 기반이 충분한 만큼 이를 숙박과 연결하는 체류 전략을 먼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양성과 운영 시스템까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일시적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현대차, '뉴르부르크링 24시' 11년 연속 출전

내달 14~17일 TCR·SP4T 참가 차세대 고성능 파워트레인 검증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현대 N'이 다음달 14~1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2026 뉴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 출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는 2016년 첫 출전한 이래 11년 연속 뉴르부르크링 24시 완주 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뉴르부르크링 24시'는 녹색 자유로 불리는 노르트슐라이페를 포함한 서킷에서 매년 150대 내외의 경주차들이 참가해 24시간 동안의 레이스를 통한 누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순위권 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내구 레이스다.

올해는 TCR 클래스 6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SP4T 클래스 첫 출전을 통해 현대차의 미래 N 모델에 탑재될 차세대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검증할 예정이다.

TCR 클래스는 양산차의 형태와 부품을 상당 부분 유지한 채 WSC(World Sporting Consulting)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춰 제작된 투어링 경주차가 경쟁하며, SP4T 클래스는 DMSB(Deutscher Motor Sport Bund) 규정에 따라 2600cc 이하 터보 엔진을 장착한 경주차가 보다 폭넓은 개조를 통해 경쟁하는 부문이다.

현대차는 이번 대회에 TCR 클래스의 엘란트라 N TCR 1대, SP4T 클래스의 엘란트라 N1 RP 2대



뉴르부르크링 서킷에서 경주차 엘란트라 N1 RP(왼쪽 첫째, 둘째)와 엘란트라 N TCR을 배경으로 드라이버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등 총 3대의 차량을 출전시킨다.

SP4T 클래스에 출전하는 엘란트라 N1 RP는 국내 현대 N 페스티벌에 사용되는 N1 컵 카를 기반으로 개발된 경주차다.

특히 엘란트라 N1 RP는 현대 N이 10년 만에 선보일 예정인 양산 전 단계의 차세대 고성능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출전 차량은 한국, 유럽, 미국 출신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국제적 라인업이 맡아 주행할 예정이다.

뉴르부르크링 24시는 현대 N이 모터스포츠를 통해 입증해온 고성능 주행 역량과 개발 철학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무대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차세대 고성능

파워트레인의 성능과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양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뉴르부르크링 24시, WRC 등 모터스포츠를 고성능 기술의 실전 검증 무대로 활용하고 현대 N 브랜드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며, 국제 모터스포츠 무대에서의 성과를 양산차 개발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왔다.

한편 뉴르부르크링 24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내구 레이스로, 총 길이 2만5378km에 달하는 서킷은 최대 300m의 고저 차와 약 170개의 코너로 구성돼 있으며 평균 완주율이 60~70%에 불과할 만큼 가혹한 주행 환경을 자랑한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 인피니트 라인 후드 일체형 인덕션 출시

조리 중 발생 연기·냄새 제거...최대 7400W 강력한 화력

삼성전자는 인피니트 라인의 후드 일체형 인덕션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피니트 라인은 고급 소재와 디자인, 혁신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다.

신제품은 인덕션 중앙에 후드를 내장해 조리 중에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그릴, 트레이, 그리스, 탈취 필터로 구성된 4단계 필터 시스템이 적용돼 오염물과 냄새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릴 필터는 큰 이물질의 침투를 막고, 트레이 필터는 조리 중에 남은 국물이나 기름, 음식찌꺼기를 받아낸다. 그리스 필터는 조리 시 발생하는 기름 방울을 흡착해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마지막으로 탈취 필터가 냄새를 제거한다.

그릴이나 트레이, 그리스 필터는 분리 후 물 세척이나 식기세척기 세척이 가능하며, 탈취 필터는 교체 방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장형 후드보다 관리가 보다 간편하다.

흡입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모드'를 갖춰 한층 편리하다. '스마트 모드' 설정시 요리 시작과 함께 후드가 자동으로 작동하며, 공기질 센서가 꺼지면 구이 등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도(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를 감지해 흡입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자동 조절한다.

요리가 끝난 후에도 공기 케어 유지를 돕는 '에프터 런' 기능이 갖춰졌다. 후드 팬이 지속적으로 일정 시간 추가 작동하며 남아있는 연기와 냄새를 제거하고 필터 내부의 습기를 건조시켜 탈취 필터 성능



삼성전자가 출시한 인피니트 라인의 후드일체형 인덕션 제품.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인덕션 상판에는 매트한 질감의 '인피니트 글라스'가 적용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사용하면 별도의 전장형 후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개방감 있는 오픈형 주방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강력한 조리 성능을 갖췄다.

전체 화구 동시 사용시 최대 7400W의 강력한 화력으로 여러 요리를 동시에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 1단부터 9단, 부스트까지 세분화된 화력 조절을 지원하고 '보온 기능'으로 요리 완성 후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지원해 전기 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산업통상부로부터 실증 규제 특례를 확인 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동화산소화기(소방시설) 설치 의무 유예를 적용 받았다. 정승기 기자 sky@